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을 검증한다

「현실과 지향」의 복거일형에게 부치는 글

鄭雲暎

경제평론가

이쪽 끝에서 기차에 올라 너댓시간이면 저쪽 끝에 닿는 때뚜기 이마빼기만한 땅덩어리인데, 한 동네에서 살고 한 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20년만에야 비로소 이렇게 어색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야 하다니, 글썄 먼저 서로의 게으름을 탓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필시 한 사발의 밥을 얻으려니 이웃에 대한 일상적인 안부조차 거추장스런 짐이 되는 현대사회의 각박함과 비정함에 그 핑계를 돌려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작가로 입신양명한 형의 행로가 다소 기이하다면,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여기저기 잡문을 팔아 누추한 생활을 이어가는 나의 팔자도 몹시 기박한 셈이오.

복형의 근황이야 이따금 들어왔지만 그 생각을 제법 소상하게 더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현실과 지향」(문학과지성사, 1990)이란 저서를 대하고 난 다음이었소. 솔직하게 말해서 그 책의 독서는 내게 여간 고통스런 작업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독후감 제출의 숙제까지 곁들여 그 고역은 필경 이두문자를 처음 해독하려던 선인들의 수고와 절말에 못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오. 원놈의 논리전개가 그토록 뻔뻔질질하고 유사시에(?) 도망하기 위해 파놓은 '방공호'는 어찌 그리 많은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주장을 펴는 글을 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우선 두가지로 정리될 듯하오. 하나는 그 새로움에 매료되어 열심히 읽어나가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어긋남에 울화가 치밀어 책을 덮어버리는 태도일 것이오. 무척 웅졸한 녀석이란 주위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붙이는 고백이오만, 형의 책이 내게는 분명히 후자의 태도로 분류되는데도 전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처지가 지금 몹시도 나를 피로와 당황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고 있소이다. 「출판저널」에서 무슨 말로 어떻게 유혹을 해왔더라도 그 책의 저자가 형이 아니었던들 마치 복날 한증막에서 화롯불 쬐는 듯한 이 진땀나는 일을 사양했을 것이 틀림없소이다.

이기기 위해 옳다고 우겨야 하는가

우선 이 책의 부제로 붙어 있는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이란 설명이 적지않게 나의 심사를 굶고 있다는 점부터 알려야겠소. 정신질환자나 매저키스트가 아니라면 — 형의 괴이한 지론에 따르면 매저키즘의 향유 자체도 자유의 한

형태가 되는 셈이긴 하오만 — 이 세상에 자유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오. 물론 형이 쳐드는 자유주의나 자유주의자의 의미를 다소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실상 그 내용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그러한 개념들이 무척 공소한 논리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오. 예컨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숨을 쉬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은 '호흡주의자'라든가 혹은 '호흡우선주의자'라고 외치고 나선다면 그 말이 무척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오. 물론 형으로서 자유와 자유주의 사이에 일정한 경계선과 차별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반론을 펼칠 법도 하지만, 그러나 막말로 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싫어하는 놈이 어디 있으며, 그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관찰하려는 신념이나 제도로서의 자유주의에 반대할 녀석이 또 어디에 있겠소? 다만 거기서 앓을 것만 없다면!

따라서 자유주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어떤 뜻이나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자유의 '배급'에 — 물론 이런 표현에 형은 필쩍 뒤흔치지만 이제까지 자유는 한치 어긋음이 없이 배급되어 왔고, 바로 그 배급자루를 찢는 투쟁이 역사를 이루어 왔을 뿐이오 — 참여하지 못한 솔한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를 상정해야만 하오. 요컨대 형의 책에서처럼 자유주의를 간섭주의나 권위주의와 대비시키는 노력에 앞서 차라리 자유배제계층과 자유배제계층 사이의 관계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는 말이오. 자유주의의 옹호가 그 자유의 시혜에서 제외되거나 그 자유확보의 투쟁에서 실패한 계급과 세력의 처지까지를 염려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염려가 구체적 성과로써 뒷받침되어 나타난다면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런 자유주의에 한점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약속 하리다.

이러한 사정은 자유의 확보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자유주의를 그 수단으로 예측시켜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소이다. 자유를 독점한 무리와 바로 그 독점 때문에 거기에 동참할 기회를 박탈당한 부류가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자유주의가 어느 한쪽의 이해에 편드는 음험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은밀한 내막을 폭로하기 때문이오. 나는 자유주의가 지배계층의 이익을 수호하는

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떤 뜻이나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자유의 '배급'에 참여하지 못한

솔한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를

상정해야만 하오.

요컨대 형의 책에서처럼 자유주의를

간섭주의나 권위주의와 대비시키는

노력에 앞서 차라리 자유수혜계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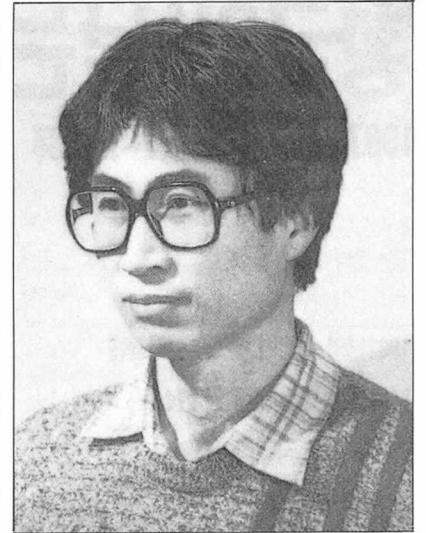
자유배제계층 사이의 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말이오.

도구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자유주의자가 그들의 관심과 요구를 전파하는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따위의 불쾌한 현실을 성토했기보다는, 차라리 '이기는냐 지는냐'는 투쟁의 문제를 '옳으나 그르냐'는 진리의 문제인 양 착각하거나 호도하거나 강변하려는 자세에 불만을 토로하고 싶소이다. 예컨대 옳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각오와 이기기 위해서는 옳다고 우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사이에는 정적성이란 대목이 개입하는데, 상인이나 정객의 귀에는 그것이 걸린의 장타령만큼이나 남루한 푸념으로 들리겠지만, 적어도 작가의 가슴에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지켜내야 할 대목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그런 시뻘잡은 참견을 하게된 셈이오.

'보수'는 과연 '개혁'보다 안전한가

복형이 열심히 선전하는 자유무역의 원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다. 쌀과 고기의 생산력을 외국에 내주고, 농토를 버린 농민은 도시 주변의 판자촌에서 낱품으로 길진 목숨을 이어가고, 그들의 딸과 아들이 술집과 사우나탕의 접객원으로 젊은 노동력을 탕진하더라도 그 알량한 비교우위의 신앙에 충실하겠다는, 그야말로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보호무역의 역효과보다 낫다고 선동하는 행위만은 그냥 방관하기 어렵소이다. 한마디로 형의 정치적 신조를 시비할 권한은 내게 없으나, 그 신조를 역설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고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오. 물론 형은 어째서 그토록 고약한 경우만을 전제하느냐고 맹렬히 반박하겠지만, 이미 우리



복거일씨

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소? 실상 나도 그 자유주의라는 화상이 책갈피의 이상으로만 안주할 작정이라면 그토록 야박하게 대접할 마음이 없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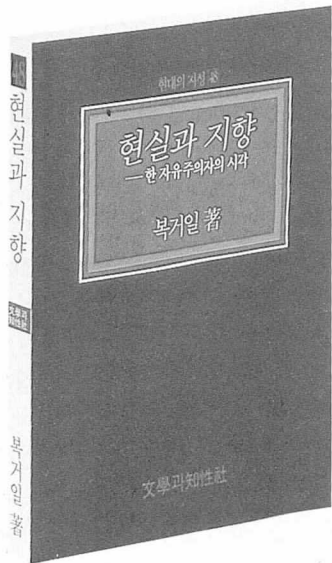
따라서 자유주의를 위한 변호와 그에 대한 반격은 결국 진리파악의 차원이 아닌 투쟁에서의 승패라는 차원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듯하오. 물론 코피를 내기 전에 먼저 말로 따지자는 신사의 고상한 예절을 모르는 바 아니나, 바로 그와 같은 우아한 말썽들이 전세계의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코피가 터지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그 신사도로 상징되는 질서라는 것이 엄정한 판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한 계급의 교활한 회유도구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짐작하려고요. 만약이나 매춘 등 이른바 '피해없는 범죄'의 허용을 예찬하는 — 적어도 지지하는 — 형의 설교를 경청하면서 제발 그것이 출판과정에서의 오식이기를 바랐던 나의 간곡한 심정도 대강이 맥락에서 헤아려주기 바라오. 나는 그런 문제들을 형의 방식처럼 도덕성의 변화내지는 자유의 구가라는 측면에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한 자본주의 — 부디 여기의 이 말을 사회주의와의 대칭개념으로 해석하지는 마시오 — 문명의 한 존재양태이며 그 문명이란 관점에서 주시하기를 권고하며, 동시에 그러한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할 때만 그에 대해 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소.

자유주의가 그 사촌쯤 되는 보수주의로 옷을 갈아입어도, 아니 '성찰적 보수주의'라는 장식을 달고 나와도 사정은 여전할 뿐이오.

북형은 보수의 미덕을 그것이 현존질서를 만들 어낸 온갖 지혜의 집합이기에 아직 실험해보지 않은 어떤 종류의 개혁보다 훨씬 더 안전하리 라는 점에서 찾고 있는 듯하오만, 그러나 그 기존질서라는 현실도 어디까지나 그 이전의 구질서의 가공할 파괴 위에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멀리 보자면 자본주의체제는 봉건주의제도를 소멸시키면서 성립했고, 그리고 가깝게는 소위 3공도 그 몰락 당시까지는 엄연한 기존질서였으며 더구나 그 정권의 붕괴가 반드시 보수주의의 처방 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소이다. 보수주의의 두 날개를 '합법'과 '개량'으로 친다면, 1987년의 6월항쟁을 성사시 킨 원인이 보수주의적 개혁안이 지닌 최대공약 수적 성격과 그 유용성에 있다는 설명은 그야 말로 년센스에 불과할 따름이오. 그 술한 민주 화투쟁 과정에서 저항세력을 고문하고 투옥하 고 살해한 것은 '불법'의 판결문이었지 결코 '준법'의 표창장이 아니었잖소?

보수주의를 보수하는 안전한 길

북형이 별로 탐탁하게 반기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번은 "합법적 개량작업은... 이전의 전복을 통해 성립한 사회형태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소 이다. 나는 그녀의 혁명이론을 강의할 능력이 없지만, 다만 합법과 개량이 '이전의 전복' 위에 성립한다는 그 통찰력만은 높이 사고 싶소. 그것은 다시 '이후의 전복'을 예상하지 않는다면 현존질서의 틀 속에서나마 그 합법과 개량이 전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오. 실로 그 현존질서를 만들어내고 지켜나가는 성분에 대해서는 편리 하게 외면한 채, 따라서 단지 터진 부분만을 때우고 거친 부분만을 다듬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주장에 포함된 독소에 관해서는 편안 하게 침묵한 채 '보수주의 논객을 기다린다' 는 엄붙은 앞서의 부정직에 이제 다시 무책임 의 과오를 추가하는 한심한 처사가 될 뿐이 오. 형이 보수주의자의 논공행상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에드먼드 버크는 이미 산업혁명이 만개한 사회에 봉건유체의 복고를 위해 분투한 일종의 시대착오자였지만 그래도 프랑수아혁명이 전파하는 자유주의를 공격할 만큼 '책임있는' 반동이였으며, 마찬가지로



레옹 왈라스 — 어쩐 영문인지 형의 책에서는 레옹 발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 또한 조세철폐를 지지하는 그의 견해가 공산주의적 이란 이유로 한때 대학교수로의 임용이 거부된 적이 있으나 그래도 의사의 치료약이 살인범의 독약보다 더 유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론을 펼칠 만큼 '정직한' 보수주의자였다는 기억을 한번쯤 되살려보기 바라오.

북형은 아마도 마약복용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용기라고 믿는 모양인데, 그러한 믿음은 크게 잘못되었소. 마약복용자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고, 반대로 최저임금이 원만하게 책정되기 위해서는 마약복용 따위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오. 따라서 마약복용의 낭비를 없애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식만이 보수주의자 가 보수주의를 보수하는 안전한 길이 될 터이 오.

자유방임에 반대했던 영국의 자유당이 전후 에 몰락해버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유방 임을 지론으로 삼았던 고전적 자유주의조차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보수주의가 '검증을 통한 대안과의 비교'라든가 '자유방임 의 한계'라든가 하는 등속의 너절한 변명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을 듯하오. 가스실에서 50 0만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도 "反보수주의적 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는 일이 과연 옳다 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그 폭거를 강제로 저지해서는 안되고, 그들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아 야, 그게 보수주의의 한계야"라면서 슬픈 표정

을 지으면 아마도 그것으로 훌륭한 보수주의자 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셈이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히틀러를 자살 하도록 섭리했으니, 사회적 강제력의 발동보다 자유방임 정신에 따른 설득을 중시하는 보수주 의의 우월성이 드디어 검증되었다고 박수라도 보낼 참이오?

근본은 두고 현상만 따지자는 것인가

보수주의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신앙은 '마르크스주의 명령경제'의 비판에 이르면 한층 점입가경으로 전개되는데, 북형은 사회주 의경제의 '실패' 요인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크게 바꾼, 그래서 자연스럽게 못한 제도"라는 점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차르 통치의 그 가혹한 수탈 아래서 "아주 적은 것을 아주 작게 바꾸었다면" 소비에트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는다는 말인데, 실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성립될 당시 의 사정과 어떤 연고로든 죽을 썩고 있는 현재 의 사정 사이에 대뜸 선행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려는 수고는 분별없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소이다. 자본주의의 원죄는 일체 덮어둔 채 이제 기존질서가 되어버렸으니 개혁 보다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요량이라 면, 비록 지금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삼아 사회주의혁명 자체를 하나 의 원죄로 규정하려는 편파적인 처사를 자제해 야만 형의 논리가 평형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 이오. 자칫 국가보안법의 저촉사유에 해당될는 지 모르는 발언이오만, 어째서 자본주의경제의 오류를 치료하는 데는 보수라는 투약으로 충분 하고 사회주의경제의 차질에 대해서는 항상 '체제이식'의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오?

소련의 경제도 이미 70여년의 경력을 쌓은 예의 그 '기존질서'가 되어버렸으며, 따라서 그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두루 지니고 있을 터인즉 그 두 측면을 서로 구별하여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 빵가게에 줄을 서고 호텔에 화장지가 떨어질 만큼 개관으로 돌아가는 딱한 장면도 연출하지만, 한달 보수 의 5%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장점도 있답디 다. 물론 지하실의 삭실세 방에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참극을 옆에 두고 알라스카에 연어낚시 여행을 떠나는 광태도 보기 힘들 것이오. 오해하지 마시오. 여기서 내가 무슨

사회주의 경제의 미덕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 라, 다만 형의 글을 읽자니 흡사 민방위교육 시간의 안보강연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마디 덧붙였을 뿐이오.

더구나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의 제약 등 그 부작용이 크기에 이미 향유하고 있는 기득 권을 반환해야 한다든지, 형이 다른 지면을 통해 강조한 대목입니다만 육체노동자는 동정 과 도움의 대상일 뿐이지 가치창조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따위의 주장은 사실상 구사대의 정신교육 훈화와 별로 다를 바 없어 여러모로 트집잡힐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형은 경제학이 가르치는 일반균형의 원리 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지만, 사흘만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계층과 아들 손자는커녕 30대 후손까지 놓고 먹어도 남아돌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계층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나 시장원리의 도입이라 는 혼시가 과연 턱이나 닿을 소리요? 근본을 캐지 말고 현상만을 놓고 따지자는 주장은 결국 그 현상이 일부 선택된 계층에게만 유리 하게 편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반발을 자초할 따름이오.

앞서 나는 '유사시의 방공호'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실로 북형의 글은 어떤 대피도 거절할 만큼 '용감한' 글이었소이다. 다시 한번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대로 "자유란 서로 다르 게 생각하는 권리"이기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형의 논리를 경시할 생각은 조금 도 없음을 밝히는 바이오. 농민은 그들이 생산 해낸 무가 각두기로 소비되던 동치미로 소비되 건 별로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작가는 그들이 써낸 글에 대해 그와 같이 한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오. 굳이 오른쪽 다리 로만 걷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형의 주장을 선전도구로 삼아 본래의 의도를 크게 악용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그 점을 각별히 조심하시라는 당부를 전하고 싶소이다.

'열대야'라는 신중유행어가 신문지상을 누비는 무더위 속에 우선 건강에 유의하시오.

1990년 8월
鄭雲暎